

# 제11강 성경의 맥잡기-귀환시대

(에스라 - 에스더)

1970년 중반 미국 신문과 잡지는 미 대륙을 걸어서 횡단한 피터 쟁킨스 라는 인물을 대서특필합니다. 쟁킨스는 자기 세대 현실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이런 일을 시도합니다. 이 미 대륙 횡단 사건에서, 쟁킨스는 “생명위협과 회복”을 피력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눈보라, 짐승의 습격, 미 대륙 광야의 잔인한 강도 등등을 시작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주는 사람들의 도움과 믿음을 제시합니다. 쟁킨스는 이 여행에서 개를 잃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새로운 세계론과 위대한 조국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5년동안 길고 혹독한 도보 여행을 마칠 즈음에 쟁킨스는 처음 자기 집을 떠났을 때와는 달리, 여행과정에서 고생, 세월, 고독, 사람들, 육체적 정신적 도전 등등을 통해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70년간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이야기는 피터 쟁킨스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어리 저리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백성으로 포로의 길을 떠나는데, 그들은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민족 파사제국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민족으로서 목적을 다시 각성한 상태에서 글고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다시 경배를 드릴 준비를 갖추며 고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시대는 4가지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1. 황폐    2. 성전(스룹바벨/학개/스가랴)    3. 민족(에스라 영적 재건)    4. 성벽(느헤미야 성벽재건)

## 1. 황폐 : 전쟁과 빙치로 인한 파손 (느헤미야 1:1-8) BC587년 - 536년 (70년)

70년 포로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성과 성전은 황폐되고, 훼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으로 훼파되었고, 이후에는 방치상태의 풍화작용으로 희생됩니다. 이것은 민족과 나라를 잃은 주권상실일 뿐 아니라, 믿음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훼파로 인한 신앙을 잃은 절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비참한 폐허 도시가 되었고, 유대민족은 절망 암흑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 2. 성전 : 스룹바벨 귀환과 성전 재건 - 1차 귀환 ( 에스라 1-6장 ) BC537 - 515년

하나님은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 유대 포로를 본국으로 귀국 시키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새로 짓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대도록 파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유력했던 유다지파 스룹바벨의 지휘아래 성전 재건을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간섭 방해 배신과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두명의 선지자 곧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와 헌신 그리고 권면 덕분에 성전 복구는 완수되었습니다.

### **3. 민족 : 에스라 귀환과 예루살렘 영적 재건 - 2차 포로 귀환 ( 에스라 7-10장 ) BC458년**

BC478년 에스더가 파사제국의 왕비가 되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예, 하만의 음모와 아하수에로왕의 칙서로부터 유대민족을 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때, 유대민족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부림절 절기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을 완수한 유대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성전 재건은 유대 민족의 영적 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예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좇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로 하여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전심을 다해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 **4. 성벽 : 느헤미야 귀환 성벽재건 그리고 회복 완성 -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BC444 - 428년**

1-2 차 포로귀환 이후 예루살렘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은 위풍당당하게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둘러싸며 보호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벽은 복구되지 않고 무너진 그대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수치일뿐 아니라, 안전의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사왕 아닥사스다의 최측근이었던 술관원장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 파사왕의 허락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 및 2차 포로귀환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처소, 웅장한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재건되며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드디어 모든 회복이 완성되었습니다.

※포로귀환 연대와 사건 내용

구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연 대	B.C. 537년	B.C. 458년	B.C. 444년
인솔자	스룹바벨(세스바살), 예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바사왕	고레스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
조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로들의 귀환 허가</li> <li>성전 재건 허가</li> <li>성전 기물들 반환</li> <li>성전 건축 자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로 귀환 허가</li> <li>그에 따른 국고 지원</li> <li>성직자 세금 면제</li> <li>관리 조직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루살렘 성벽 중건 허용</li> <li>건축 자재 지원</li> </ul>
귀환 숫자	(49,897명) 일반백성 42,360명 남종과 여종 7,337명 노래하는자 200명	(1,754명) 일반남자 1,496명 레위인 38명 성전 일꾼 220명	일단의 무리(통계 없음)
귀환후 사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전공사시작(B.C.536년)</li> <li>대적 사마리아인 방해</li> <li>공사중단(B.C.534-520년)</li> <li>제사 재개</li> <li>장막절 준수</li> <li>성전공사재개</li> <li>완공(B.C. 520-516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스라 종교개혁</li> <li>이방인과의 결혼으로 혼란에 처한</li> <li>여호와 신앙 순수성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루살렘 성벽 중건</li> <li>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성</li> <li>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교육</li> </ul>
참조구절	에스라 1-6장	에스라 7-10장	느헤미야 1-13장



